

“코로나19 함께 극복” 기관들 힘 모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부터 나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자 100명에게 매주 도시락을 배달(왼쪽)하고 있으며, 한전KPS 등 혁신도시 기관들은 지역 꽃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농어촌공사, 602개 업체 임대료 30% 인하·도시락 배달도 aT 화훼농가 해외진출 지원·한전KPS 꽃 소비 촉진 등 앞장

16개 공공기관과 278개 민간기업이 이전한 빛가람혁신도시도 코로나19 불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전기관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취지를 살리고 있다.

◇착한 임대인·화훼소비 '지역 경제 살리기'=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상가를 돕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며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광주 17개·전남 25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6개월 간 30% 인하했다. 전국 인화 대상 업체는 602개다. 인화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주거·영농임대료는 제외한다. 공사는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방침이다.

졸업식·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직

격탄을 맞은 화훼농가를 위해 혁신도시 기관들은 다양한 형태로 꽃 소비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나주 본사와 지역부서 482곳 사무실마다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구입해 비치했다. 개인 꽃병 가꾸기와 기념품 꽃 보내기 등 꽃 소비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전KPS도 700만원 상당 꽃을 구입해 직원끼리 선물하는 '사랑나눔 플라워 데이' 행사를 가졌다. 나주시역 딸기와 지역 화폐 나누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온 사학연금은 이달 중 '사랑의 꽃 나눔 행사'를 열기로 했다.

aT는 최근 6500억원 규모 수입 꽃 시장을 지닌 러시아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K-플라워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며 판로 넓히기에 나섰다.

◇성금·현물·도시락 배달·잇단 온정=

농어촌공사는 나주시역 홀몸 고령자 100여 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복지시설이 줄줄이 휴관하면서 이용자들이 끼니를 거를 우려에 대비해서다. 공사는 지난 9일부터 나주시 노인복지관 이용 고령자에게 일주일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또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행사를 미리 열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혁신도시 기관 임직원들의 성금 전달도 이어지고 있다. aT는 1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최근 전달했고 사학연금은 3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받은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나주 특산물 '도라지 배즙' 215상자를 구입해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병원 14곳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전KPS는 나주시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입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하고 국군간호장교 구호활동 지원금 210만원, 지역이동센터 지원 성금 700만원을 잇따라 기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나주 본원에서 혈액 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열었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 10곳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32억원을 기탁했다. 한전과 성금에 동참한 그룹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11곳이다.

성금의 절반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배정됐다. 한전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1694곳에 2억7000만원 상당 손소독제 10만개를 제공한다.

나주 본사를 포함한 전국 사업소는 헌혈 캠페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취약계층 위생·생활용품 지원, 구내식당 지정휴무제 시행, 회사 행사 때 지역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 기관들은 각자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세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재택근무제와 구내식당 한 줄 앉기, 화상회의 등으로 근무 혼잡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과 전력그룹사 임직원 모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반가공식품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국산농산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최대 4000만원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27일까지 '2020년도 반가공식품 연계 활성화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국산농산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식품 제조업체이다. aT가 선정한 5개 업체는 올해 업체별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범생산에 필요한 토지 임차 비용 ▲원료농산물 보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 식품첨가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가공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주요 전력설비 현장 안전점검

해빙기 맞아 송수신용 안테나 등 불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전KDN은 지난 12일부터 주요 전력ICT 설비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박성철 사장이 직접 참여해 산악지대 철탑의 송수신용 안테나와 디지털 무선장치 시설물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높이 30m 이상 철탑으로, 통신고도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감시·제어용 무선통신망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사장은 점검 현장에서 직원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와 위험성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확인한 뒤 안전관리 개선 의견을 들었다. 한전KDN은 지난해 34차례에 걸쳐 현장 안전점검을 벌였다. 박 사장은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등 사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직원 교육과 사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년 파수꾼' 선발 "청렴·인권문화 정착" 유도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협력사 청렴인권 상생워크숍 (한전KDN(주) 2019. 6. 13.(목))

한전KDN 20~30대 직원 구성

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전KDN은 20~30대 직원 36명으로 구성된 '청년 파수꾼' (사진)을 만들어 기업의 청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KDN은 '청렴인권 워크숍'과 '아이디어 워크숍'을 열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과 인권 강령 및 기조를 공유하고 개선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청렴윤리 문화 공모전, 청렴 워크숍, CEO가 직접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 등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참가자들은 '청렴인권 TTS' (Twenty~Thirty Supporters)라는 이름으로 '청렴 파수꾼' '인권 파수꾼'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청렴·인권문화 정착을 위

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맡는다.

농어촌공사, 사업관리시스템 중소기업에 개방... '누구나' 시스템 구축

협업업체 시간·비용 절감 효과

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7일부터 각종 사업관리시스템을 협업업체들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시공업체들은 업무절차, 가이드라인, 공정계획 수립 및 보고, 착수, 준공 등 계약관리와 용지보상, 인허가 정보 등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날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협업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NUGUNA)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실적관리 등 일부 기능을 운

'누구나' 시스템은 관리자와 실무자인 시공사, 공사감독, 사업관리자, 용역업체

등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단계별로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업별로 설계·시공·준공·하차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도 도입해 정보 보안을 강화했다.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업현황은 현재 1953개에 달한다. 공사는 빠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 정부 사업 재정조기집행

'누구나' 시스템은 오는 2021년 본격 운영된다.

김인식 사장은 "누구나 시스템의 활용으로 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그 성과를 중소기업체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타일 | 지중해 스타일